

##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김한용


### 일러두기

- 1 본 자료집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가 2010년에 발간한 자료집 제1호부터 2016년에 출간한 제12호까지 총 열두 권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오기와 오류를 교정한 자료집 제13호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1호-제12호 교정본』이다.
- 2 연구소 간행 자료집 열두 권은 「자료집 교정 내규」에 따라 수정하였다.
- 3 정오표는 페이지, 줄(또는 위치), 교정 전, 교정, 비교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 1) 페이지: 각 자료집의 페이지수이다.
  - 2) 줄(또는 위치): 수정할 내용의 위치를 페이지 위로부터의 '줄 수', '도판', '도판 캡션', '각주' 등으로 상세히 지정한다.
  - 3) 교정 전: 수정이 필요한 자료집 원문을 기재한다.
  - 4) 교정: 수정, 삽입, 삭제, 추가 등 교정 사항에는 볼드체 표기한다.
  - 5) 비교: 수정의 실증적 근거 및 참고 문헌과 출처를 수록하고 수정 사항을 보충한다.
- 4 자료집 제3호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설립과 한국의 사진교육』의 69-71쪽에 수록한 「해방 이후 한국사진교육 약사: 1945-1974」의 수정 사항은 정오표 형식을 따르기 어려워 원문을 바탕으로 수정 사항 및 참고 문헌만 볼드체 처리하여 재정리하였다. 자료집 제3호 정오표와 분리해 수록하였다.
- 5 자료집 제6호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숙명여자대학교 사진부 속미회 50년을 지나고』의 142-153쪽에 수록한 「속미회 연보」의 수정 사항은 '줄(또는 위치)' 대신 '연도 《전시명》'을 기준삼았다. 정오표 형식을 따르기 어려워 자료집 제6호 정오표와 분리해 실었다.
- 6 자료집 제9호 「임응식 스크랩북 및 녹화물 총 목록집」은 펼침 면을 기준으로 정오표를 작성하고 한 자료당 여러 항목의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 로 항목 간을 구분하였다.
- 7 원문의 오기나 오타를 편집자가 교정하거나 혹은 문맥상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 주를 달 때 []안에 병기해 보충하였다.
- 8 그 외의 문장 부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었다.  
《 》: 전시명, 행사명, 〈 〉: 작품명, 「 」: 논문, 기사 제목, 에세이명, 『 』: 책, 잡지, 신문명, [...] : 중간생략, “ ”: 인용구, ‘ ’: 강조, 주요 개념, \* : 출처 및 근거.  
※ 자료집 제7호의 일본어 감수는 일본어 역자인 박완 님의 도움을 받았다.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13	30	팔아서
15	24	서남 국경,
28	26	이향난(山口淑子, 1920 - )이라고, 영화배우 중국 사람 이향난이라고 있어요.
33	7	『타임라이프』(Time Life)를
33	8, 9, 18, 23, 30	『타임라이프』
33	9	월간지 아니고
33	10	월간지 아니거든.
34	8	『타임라이프』가
41	도판 캡션	『한국화보』, 국제보도 연맹 발행, 1953년 휴전무렵, 표지사진 김한용
41	24 - 25	버크 화이트(Magaret Bourke - White, 1904 - 1971, 미국 보도사진가)라고
42	24, 26	『타임라이프』
44	34	결재
46	3	(채록 불가)
47	14	공군기념일날 내가 찍은 거지,
47	15	공군기념일 때
54	20	백 장.
59	각주15)	1946년 조선사진예술연구회(현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창립에

교정	비고
사서	
소만 국경,	
이향란(李香蘭, 山口淑子, 1920 - )이라고, 영화배우 중국 사람 이향란이라고 있어요.	
『타임(Time)』, 『라이프(Life)』를	*『타임(Time)』지는 신문기자 헨리 루스(Henry R. Luce)와 브리턴 헤든(Briton Hadden)이 설립한 타임사가 1923년 창간한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다. 이후 루스는 1883년 창간된 유머 잡지의 제호를 사들여 1936년 『라이프(Life)』지를 창간했다. 『라이프(Life)』지는 포토저널리즘을 주도했던 미국의 시사 주간 사진잡지로 60년대와 7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 불황을 맞아 휴간과 복간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타임(Time)』, 『라이프(Life)』	
월간지 아닙니까?	
월간지거든.	
『타임(Time)』, 『라이프(Life)』가	
『Glimpse of Korea』, 국제보도연맹 발행, 1953년 휴전무렵, 표지사진 김한용	*『Glimpse of Korea』(국문명 '한국별견(韓國瞥見)')는 국제보도연맹에서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발행한 영문 사진화보이다. 『한국화보(Pictorial Korea)』, 1961, 상세 페이지 없음; 『사진화보 『한국별견』 오윤대표에게 기증』, 『경향신문』, 1956. 11. 21.
버크 화이트(Margaret Bourke - White, 1904 - 1971, 미국 보도사진가)라고	
『타임(Time)』, 『라이프(Life)』	
결재	
19일	
육군 기념일 날 내가 찍은 거지,	
국군의 날 때	
몇백 장.	
[출처별 창립연도 상이]	*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창립연도를 1945년으로 표기한 출처: ① 『대한사진예술가협회서 사진전시회 개최』, 『동아일보』, 1958.7.11. ② 한국사진문화사, 『사진계 연표-한국사진 70년사』, 『한국사진연감 1966년판』, 1966, 14쪽. ③ 『사진클럽 지상소개: 대한사협의 발자취』, 『포토그래피』, 1968년 1-2월호. ④ 『사진예술가 협회 창립 30돌 기념전』, 『경향신문』, 1975.11.18. ⑤ 국립현대미술관 편, 최인진, 육명심 저, 『한국현대미술사: 사진』, 동화출판공사, 1978, 91쪽. ⑥ 임응식, 『내가 걸어온 한국사단』, 눈빛, 1999, 72쪽. ⑦ 이해선은 자필 이력서 및 매체 인터뷰에서 '조선사진 예술연구회'의 창립을 1945년이라고 증언했다. "창립 이듬해인 46년 11월 첫 사진공모전을 열었지", 『외길 한평생(11)사진-예술 이해선』, 『서울신문』, 1973.3.18; "9월 중순이나 하순 무렵에 [...]"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60	각주20)	1946년 이해선, 김정래, 박필호 등에 의해 조직됐으며
60	각주20)	1949년 대한사진예술연구회
61	7	발행된...
65	21	수류탄을 딱 던지는데,
66	8	이게 그저
66	30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69	26-27	화랑에서 얘기가 됐는데...
71	도판	
73	7	이제 같이 일어났지만은

교정	비고
	<p>창립총회를 열고 규약도 만들고 회장, 부회장, 간사 그런 사람들도 선출했다.” 최인진, 『한국사진 역사의 증언(4) 사단의 단체 활동과 이해선』, 『한국사진』, 2002년 3월호, 50쪽.</p> <p>⑧ 대한사진예술가협회 공식홈페이지 http://www.paakorea.com/html/about.php</p> <p>⑨ 한국사진사연구소, 『한국사진사 연표(1630-1980)』, 『한국사진역사전』, 도서출판 연우, 1998.</p> <p>*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창립연도를 1946년으로 표기한 출처: ① "서울아마추어사진동호인은 사도(寫道)의 향상 발전을 도모코자 동회를 조직하였는데 회장은 박영진 씨이며 불원 발회 기념전을 개최하리라고". 『조선사진예술연구회』, 『한성일보』, 1946.3.9. ② 최인진은 『한성일보』 위 단신과 『재일조선연감』 1949년도 판을 근거로 하여 '조선사진예술연구회'의 창립일을 1946년 3월 5일로 보았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편저, 『한국사협사 1 1945-1970』, 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01, 22-28쪽. 그러나 『재일조선연감』은 소장처 부재로 확인이 어렵다. ③ 이경민, 『제1장 한국근대사진의 흐름-사진계의 형성과 전개 과정: 1900년대-1950년대』, 『한국사협50년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13, 92쪽.</p>
<b>[출처별 창립연도 상이]</b>	* 위 편집자 주 참고.
<b>[출처별 개칭연도 상이]</b>	<p>* '조선사진예술연구회'에서 '대한사진예술연구회'로 개칭한 연도를 1947년으로 표기한 출처: 대한사진예술가협회 공식홈페이지 http://www.paakorea.com/html/about.php.</p> <p>* '조선사진예술연구회'에서 '대한사진예술연구회'로 개칭한 연도를 1948년으로 표기한 출처: "(조선사연, 1948년 대한사진예술연구회로 개칭)", 이경민, 『제1장 한국근대사진의 흐름-사진계의 형성과 전개 과정』, 『한국사협50년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13, 92쪽.</p>
발행된, 조명원 선생님...	
수류탄이 딱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 해에 51년도에	
화랑에서 열리게 되는데...	
	* 김한용 사진 스크랩북 참고; 최인진, 『상업사진의 시대를 연 김한용의 사진세계』, 『영상』, 1980년 10월, 31쪽에 게재된 <봄비> 도판 참고.
이제 다치지 않았지만은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74	30	내가 조선일보서 한 것은
75	4	없는 돈으로 찍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75	17-18	이만하게 뽑고
75	각주32)	눈빛, 1991
77-78	34-1	안월산 씨(安月山, 1909 - 1969),
79	4	추려서 인제 회원전에 출품하기도 하고 이런 거 하시고...?
79	22	되어 있는데, 임응식 씨가 욕을
79	23	임응식 씨가 하는거 듣고 앉아있게 생겼어?" 나간단 말이야.
79	각주34)	이경모(李炯謨, 1926 - 2000).
84	12-13	옛날엔 안 그랬습니다. 사진 안 그랬어요. 그림을 그리지 안 그랬었습니다. 웬만한 데서 저희는 장소를 안 내줬어요.
84	15-16	해결하고 그런거(채록 불가) 있잖습니까?
85	14	내가 그걸 보다가 다 비평하는 데
85	15	세 번 받았습시다.
85	20	카슈
85	29-30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갈데 있고
86	4	공부 잘 하고
86	9	또 기준이 있고,
86	30	(채록 불가)
87	20	이렇게
87	26	안 좋아서
89	31	일본 가서 찍겠다는 말이지.
91	18	아침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있으니까.
92	각주44)	1961년 창립된 [...] 1960년 제1회전을 끝으로 해체되었다.
93	5-6	유일하게 사무실이 있었어요, 항상.
93	30	정훈국 주도 하에...
94	24	못했었을 것
96	6	임응식 씨가 심사를 하는데, 아마 이경모 씨 심사를
97	8	예, 비둘기, 그게 어서 찍었냐면
100	2	그렇게 응모는

교정	비고
내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한 것은	
없는 돈에도 가서 찍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화를 뽑고	
눈빛, 1999	
안월산 씨(安月山, 1909 - 1978),	*안월산은 1977년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을 역임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편저, 『한국사협50년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13, 481쪽.
추려서 나중에 회원전에 출품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었나요?	
되었는데, 임응식 씨 욕을	
임응식이 욕하는 거 듣고 앉아있게 생겼어? 나 간다."고 말이야.	
이경모(李炯謨, 1926 - 2001).	* 한국사진작가협회 편저, 『한국사협50년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13, 469쪽.
옛날엔 [장소] 안 빌려줍니다. 사진 [전시는 장소] 안 빌려줘요. 그림은 [장소] 빌려주지 [사진은 장소] 안 빌려줬습니다. 웬만한 데서 저희는 전시장 안 빌려줬어요.	
혜택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보다가 딱 옆에 보니까	
세 번 가봤습시다. 내가.	
카슈(Yousuf Karsh, 1908 - 2002)	
옛날에 필름 살 수 있고	
돈 [많은] 부자고	
또 일가견이 있고,	
보고서 평가하지	
이렇게 발족을 했는데.	
안 좋아서 별도로 만든건가요?	
일본 가서 찍는다 이거지.	
아침에 들어가서 밤새 하루종일 찍으니까.	
1960년 창립된 [...] 1961년 제1회전을 끝으로 해체되었다.	
유리하죠. 사무실이 있으니까, 항상.	
정훈국 주도 하에 이제 한국사진협회가 만들어졌...	
못 됐었을 것	
이해선 씨가 심사를 하는데, 이경모 씨가 심사를 아마	* 뒷문장과의 연결로 보면 임응식의 언급이 자연스러우나, 구술을 바탕으로 정정했다. 당시 임응식과 이해선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사퇴했다.
예, 비둘기 날아가는..., 그게 어서 찍었냐면	
그렇게 많이 응모는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100	31	(채록불가)
101	17	감동이 다르고.
101	19	찍게 해야 됩니다.
101	21-22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102	15	추우면 춥다 하는 게 난리죠,
102	28	그래서 그러면 딱 보면 유행인가 아닌가
102-103	34-1	어디서 찍었느냐? 시간이 언제냐? 광선 언제 찍었냐? 얼마 시간이 들었냐. 묻는 거보,
103	8-9	나쁘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103	15-16	그림에다가 [...] 그 그림 떼면 여백은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103	17-18	그 젊은 사람이 여백에다 [...] 여백 속에다가.
103	26	한 장을 저.. 그렸어.
103	30	에이바이텐
103	33-34	잠깐만 사진 찍어 놓은 걸 보세요.
104	도판 캡션	김한용, <월드컵>(일부), 160×1500cm, 2002 (『김한용작품집』, 눈빛, 2003)
104	6	근데 사진작가들 중 임응식 씨가
104	13	내가 팔씨름을 졌거든.
105	도판 캡션	김한용, <무용>(일부), 150×1740cm, 1981 (『김한용작품집』, 눈빛, 2003)
105	13	내가 『육군화보』 기자 할 때
105	16	그 내가 추석날도 무식한 사람이야.
109	33	그 후에 인지,
121	각주51)	(ICP Encyclopedia of Photography, A Pound Press, 1984)
123	12	삼손(Samsom)이라
126	13	광고가 튼튼해진다.
127	도판 캡션	아이디어 이태영,
127	20	대상 수상하시고...
128	도판 캡션	제6회 조일광고상을 수상한 <오리엔트 시계> 지면광고, 1969, 아이디어 이영희, 사진 김한용
129	도판 캡션	제5회 조일광고상을 수상한 <신진 퍼브리카>,
131	각주54)	임응식 「수작없는 평준화, 신인 활기-제13회 조일광고상을 마치고」, 『조선일보』, 1976.10.22
132	25	아침에 거저 습관이 있다면은,

교정	비고
미술에 출품하려면	
감동이 다르고.	
찍어야 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추우면 춥다 하는 거[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딱 보면 노력했는가 아닌가	
언제 찍었느냐? 시간이 언제냐? 광선 언제 찍었냐? 얼마 시간이 들었느냐? 이거 보는 거거든.	
나쁘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백에다가 [...] 그 그림 떼면 여백은 다 치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전시장 여백에다 [...] 연결시켰어.	
한 장을 전체로 그렸어.	
에이바이텐 (8×10)	
생각나면 [사진을] 붙여요.	
김한용, <응원>(일부), 160×1500cm, 2002 (『김한용작품집』, 눈빛, 2003, 13쪽)	
근데 사진작가들 중 윤(채록 불가) 씨가	
내가 팔씨름을 졌거든. 일본놈한테.	
김한용, <우리 무용>(일부), 150×1740cm, 1981 (『김한용작품집』, 눈빛, 2003, 96쪽)	
내가 육군 보도 화보 일 할 때	
그 내가 추석날도 무식한 사람이야.	
그 후에 이제,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ICP encyclopedia of photography』, A Pound Press Book, 1984)	
삼손(Samson)이라	
광고가 유명해진다.	
아이디어 이태영, 레이아웃 양승춘,	
《조일광고상》 수상하시고...	
《제5회 조일광고상》에서 준조일광고상을 수상한 <오리엔트 시계> 지면광고, 1968, 디자인 이효일, 문안 유충식, 사진 김한용	* 《제5회 조일광고상 입선작품전》 (1968.12.2-12.7, 신문회관) 팸플릿.
《제5회 조일광고상》 장려상 문안부문을 수상한 <신진 퍼브리카>,	* 《제5회 조일광고상 입선작품전》 (1968.12.2-12.7, 신문회관) 팸플릿.
임응식, 「(사진) 예년보다 전체적으로 세련된 반가움, 공동제작 유독 촬영자 이름빠져 섭섭」, 『조선일보』, 1976.10.22	
아침에 (채록불가) 찍어서 내는 습관이 있다면은,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137	11	(웃음) 인제 그계
137	31	그러니까 이정재 씨,
138	3-4	만드셨던 이정재, 김응태, 이건중, 이건설 씨가
138	9	그 뭐 또 돌아가신 분 많아요.
138	26	남상준 씨,
142	1	그러니까
148	11-12	상업사진이 되었던 역시 동일한 격자 형태로, 연속 격자,
151	16	12m짜리
151	17	사진을 한 장
154	12	요새
156	좌단 24	국제보도의
156	우단 11	북조선노동당
156	우단 14	전국문화단체총연맹
157	좌단 19	국제보도
158	좌단 8	대상
158	좌단 15	대상
158	좌단 24-25	대상 수상(합작: 이영희, 유충식)
158	좌단 32	수상
159	좌단 3	본상 수상
159	좌단 4	<국제양모사무국>로
161	첫번째 단락 19	(통권 120호)
161	첫번째 단락 22-24	김한용, 「광고전문인의 세계(vi) 한국 광고사진계의 초창기와 오늘」, 『다이아몬드애드』(통권 54호), 1992.1
161	첫번째 단락 36	2002.2
161	세번째 단락 1	「제11회 광고인 대상 수상자 - 김한용」,
161	세번째 단락 19	2003.3.18
161	세번째 단락 35	‘총무로의 사진가들’
162	첫번째 단락 23	자연을 결합하는 극기,
162	첫번째 단락 30	1980.1
162	두번째 단락 16-18	홍순태, 「광고전문인의 세계(vi) 포토그래퍼 한국 광고사진의 현황과 예술성」, 『다이아몬드애드』(통권 54호), 1992.1
162	두번째 단락 22	「디자인」,
162	두번째 단락 23-24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잊혀져 가는 추억의 시간으로, 김한용」,

교정	비고
(웃음) 나한테 다시 안 와. 인제 그계	
그러니까 <b>유정재</b> 씨,	
만드셨던 <b>유정재</b> , 김응태, <b>김광부</b> , 이건설 씨가	
그 { <b>최: 이정강 씨, (채록불가) 씨...</b> } 뭐 또 돌아가신 분 많아요.	
<b>문선호 씨</b> , 남상준 씨,	
<b>그런데</b> 우리는	
<b>상업사진</b> 역시도 어떤 이런 격자 <b>형태요</b> . 연속 격자 <b>형태</b> .	
<b>6m</b> 짜리	
사진을 <b>스물한 장</b>	
<b>후세[에]</b>	
<b>국제보도연맹의</b>	
<b>북조선노동당</b>	
<b>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b>	
<b>국제보도연맹</b>	
<b>조일광고상</b>	
<b>일반부 조일광고상</b>	
<b>일반부 조일광고상</b> 수상(합작: 이영희, 유충식, <b>김한용</b> )	
수상(합작: <b>송명섭</b> , <b>김한용</b> )	
<b>상공부장관상</b> 수상(합작: <b>박승직</b> , <b>강선우</b> , <b>한상후</b> , <b>김한용</b> )	
<b>&lt;국제양모&gt;로</b>	
(통권 120호), <b>1988.6</b>	
김한용, 「광고전문인의 세계( <b>VI</b> ) 한국 광고사진계의 초창기와 오늘」, 『다이아몬드애드』(통권 54호), 1992. <b>10</b>	
2002. <b>1</b>	
「 <b>본사 제정</b> 《제11회 광고인 대상》 <b>시상</b> , <b>대상에 권익표 씨</b> , <b>공로상 김한용 씨</b> (사진연구소소장), <b>고광택 씨</b> (『경향신문』 광고담당 이사)」,	
2003.3. <b>19</b>	
‘ <b>총무로</b> 사진가들’	
<b>과학과</b> 자연을 결합하는 극기,	
1980. <b>10</b>	
홍순태, 「광고전문인의 세계( <b>VI</b> ) 포토그래퍼 한국 광고사진의 현황과 예술성」, 『다이아몬드애드』(통권 54호), 1992. <b>10</b>	
「 <b>월간</b> 디자인」,	
<b>김한용</b> , 「 <b>추억의</b> 광고사진: 잊혀져 가는 추억의 시간으로」,	

페이지	줄 (또는 위치)	교정 전
162	두번째 단락 27,29,31,33,35	편집부, 「추억의 광고사진, 김한용」,
162	세번째 단락 5	2007.1
162	세번째 단락 14	「Culture - 사진가의 책가도」,
162	세번째 단락 18	「얼」,
162	세번째 단락 27	「희망의 연대기: 카메라로 바라본 1950-1960년대」,
162	세번째 단락 30	Kunst Halle
163	10	「해방 초기의 사진잡지 연구」,
164	2-3	
164	16	일찍이
164	27	된다. 예술이
165	9	파인더
165	28-29	
166	2	음악, 미술, 사진을
166	6	소개되었다고
166	18	더욱이
166	24-25	
167	7	사진이라 매력적인

교정	비고
김한용, 「추억의 광고사진」,	
2007.10	
「Culture - 사진가의 책가도 - 김한용」,	
「김한용作品集: 얼」,	
「김한용 사진집 - 희망의 연대기: 카메라로 바라본 1950-1960년대」,	
Kunsthalle	
「해방 초기의 사진잡지 연구 - 『국제보도』와 『사진문화』를 중심으로」,	
·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영향	소제목 삽입.
일찍이 [일찍이]	
된다. · 순수한 영혼의 표현이어야 예술이	소제목 삽입.
화인더 [파인더]	
· 허무주의에 걸맞는 외래 풍조	소제목 삽입.
음악, 미술, 사진[사진]을	
소개되어졌다고	
더욱이 [더욱이]	
· 정신적인 활력소	소제목 삽입.
사진이란 매력적인	